

외국의 어린이 방화교육 소개(유럽 편)

방화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화교육은 심신의 교육단계나 이해도에 따른 효과적인 방화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방화교육의 실상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방화교육에 충실을 기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유럽의 방화교육 실상에 대해 영국(런던), 독일(뮌헨), 프랑스(파리) 각 도시에서의 소방기관에 의한 방화교육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 소방국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화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방화학습(LNTB Curriculum)
- 전담 소방직원에 의한 방화이야기
- 전국청소년화재예방퀴즈대회
(The National Fire Prevention Youth Quiz)
- 작은 시민(Junior Citizen)

아래에 그 개요를 서술한다.

가. 방화학습(LNTB Curriculum)

이 교재는 초등학교용으로 편집된 것으로, 원본은 NFPA가 작성한 「방화학습」(Learn Not to Burn Curriculum) 가운데 3~5학년용을 참고로 하여 런던 소방국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런던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영국의 학습지도요령(National Curriculum) 과도 조화를 꾀하여 교육 일선의 교사들이 선택하여 국어, 산수, 요리, 예술, 음악 등 평소의 수업 중에 섞어서 방화교육을 할 수 있게 배려되고 있다. 런던소방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화재에 대해 정해진 단순한 메시지를 알기 쉽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무엇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화재를 어떻게 막으면 되는지, 또는 불이 난 경우 무엇을 하면 좋은지 등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하여 기술되어 있다. 아이들은 이 학습을 통해 화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화재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불이 났을 때 자연스럽게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NFPA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방화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 9가지가 3개 분야(Protection, Prevention, Persuasion)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관련된 35가지 학습과제가 그림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35가지 학습과제는 9가지 중요한 포인트와 관련되어 있는데, 단독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에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1) 화재로부터 몸을 지킨다 (Protection)

- 가정에서의 피난계획
- 학교에서의 화재훈련과 화재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알릴 것 화상 응급처치

(2) 화재를 예방한다 (Prevention)

- 도구로서의 성냥

- 전기, 열원, 가연성 액체에 대한 방화
- 야외에서의 화재예방, 사고방지(전기기구나 雷 등에 의한 것)

(3) 방화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한다 (Persuasion)

- 연기감지기의 설치와 유지관리
- 소방 업무와 지역사회
- 역사적인 대화재의 양상

(4) 학습과제

- 소방대원의 자질
- 과학적인 조사
- 불꽃이란 무엇인가
- 불꽃은 시간을 알리는가
- 열은 물건을 따라 옮겨질 수 있을까
- 물건이 뜨거워지면 커지는가
- 열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 열은 축적되거나 없어지는가
- 마찰로 열을 발생시키는가
- 온도를 잴다
- 전기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을까
- 지도나 계획은 어떻게 소화활동을 도울까
- 신호
- 표식
- 연기는 어디인가
- 거리의 화재
- 1666년에 일어난 런던대화재
- 때를 넘긴 불
- 소방직원의 복장
- 소방대의 역사
- 실수 찾기
- Edwardian의 소방차
- 안돼! 안돼! 안돼!
- 코끼리 소방수
- Matilda
- 언어선택
- 가정의 연기감지기
- 화재퀴즈
- 화재 십자말풀이
- 언어 찾기
- 소방 업무
- 소방차 십자말풀이

- 사다리게임
- 방화안전
- 화재발견
- 수화

나. 전담 소방직원에 의한 방화이야기

초등학교 교사의 「방화학습」을 이용한 교육과 병행하여, 런던의 전담 소방직원이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비디오, 슬라이드, 영화 등을 사용해서 방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 뒤에 학교 전체의 피난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 전국 청소년 화재예방퀴즈대회
(The National Prevention Youth Quiz)**

이 퀴즈대회는 학교, 청소년단체, 클럽 등의 팀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로, 중앙화재연락협의회가 소방회장과 협력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 고양과 이 대회를 통해 배양된 지식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 정신을 익히는데 있다. 퀴즈 문제는 미리 대회사무국에서 배포한 교재나 방화에 관한 여러 팸플렛 중에서 출제된다.

경기는 13~16세까지의 4명이 1팀이 되어 제1라운드부터 제3라운드까지를 싸워 득점을 다룬다. 제1라운드는 관찰테스트로 5장의 컬러 슬라이드 중에서 20개의 방화상의 잘못이나 부적절한 곳을 지적한다. 제2라운드는 개인경기로, 팀 멤버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질문이다. 제3라운드도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 팀 내에서 답을 상의해도 된다. 단, 상의할지 말지는 사전에 정해 두어야만 한다. 상의하지 않고 정답을 맞혔을 경우에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라. 작은 시민(Junior Citizen)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특이하여 아이들에게 날마다 주변에 잠재하는 위험(화재는 물론 교통사고, 가스누설, 철도사고, 수난,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유효하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각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4명의 초등학생(9~11세) 그룹에게 약 10분간 연기를 시켜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이벤트이다. 위험이 가득

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는 기술과 런던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아울러 가르친다는 종합적인 방재교육이다.

1991년부터는 민간기업인 영국텔레콤이 스폰서가 되어 경찰을 중심으로 소방, 구급협회 등의 관공서, 가스회사, 전력회사 등의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LPC(Loss Prevention Council: 손해방지협의회)와 FPA(Fire Protection Association: 방화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방화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방화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소화활동이나 방화관리 등을 가르치는 매니저먼트 코스와 방화체크나 소방용 설비의 설치와 유지 등을 가르치는 엔지니어링 코스 등이 있다.

2. 독일

뮌헨에서는 초등학교의 사회과목 수업에서 아이들이 뮌헨의 자치조직체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이 있어 그 때 교사가 소방 업무나 방화이야기를 한다. 대상은 9~10세이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옛날의 도시 화재와 오늘날의 도시 화재
- 화재통보에서 소화까지
- 뮌헨의 소방

이 과제에 따른 슬라이드나 영화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재통보에서 소화까지」의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대가 호출된다
- 지령센터에서 즉각 소방대로 지령을 보낸다
- 소방대가 출동한다. 소방차의 청색불과 사이렌은 도로의 우선 통행을 의미한다
- 화재현장에서는 대장이 소방대원을 배치시킨다. 모두가 협력하여 피난이 늦어진 사람을 구조한다
- 화재는 진화되었다. 소방대들은 소방서로 돌아간다.

또한, 「Alarm Alarm Alarm」이란 제목의 노래도 있다. 아이들은 수업의 일환으로 뮌헨소방국을 방문하여 소방국 건물에 있는 소방박물관을 견학한다. 이

박물관에는 뮌헨 소방의 역사, 소방기계기구와 소방용 설비의 발전 경위, 소화활동의 변천, 그리고 많은 화재현장의 패널리 사진과 불탄 TV 등의 전기제품, 불타버린 실물 지하철 차량까지 전시하고 있다.

역시, 견학 전에 영화와 소방직원이 하는 방화이야기가 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화재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이다.

3. 호주

호주에서는 대륙 동남부를 중심으로 Bush Fire라 불리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건조기에 옥외에서의 불의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여기서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소방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방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서술한다.

기업의 방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의 기초 지식」, 「초기소화」, 「관리자 연수」의 각 기초코스를 비롯하여, 상급코스 및 기초코스를 조합시킨 코스 등 12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것과는 별도로 참가자의 요망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프로그램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재의 기초지식」코스는 강습시간 2시간, 참가인수 30인까지로, 그 비용은 전부 350호주달러이다. 이 강습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 종류
- 긴급시에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의 준비
- 초기소화의 유효성과 위험성
-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

이 외에 지진과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의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탁아소 세미나」에서는 화재예방, 피난계획, 화재를 발견한 경우 무엇을 하는 걸까, 소방용 설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강습이 행해진다. 이 코스는 강습시간 3시간, 참가인원수 30인까지로 그 비용은 전부 450호주달러이다.

유료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아동을 위한 방화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이것은 아동의 화